

신문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정 먼 숙** · 강 영 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간호계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간호연구나 교육, 실무측면의 내적인 성장과 함께 건강관리체계 내에서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리더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간호사들에게도 권력이나 정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간호사들도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새로운 정책이나 간호실무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인 대중들의 힘을 간호계의 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 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날로 증가되는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에 따른 비용의 과다지출등의 문제로 인해서 조기퇴원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은 비용 효과면에서나 역할 면에서 적절한 간호인력을 활용 하므로써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호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자들인 일반 대중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도움을 간호사로 부터 얻을 수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를 볼때,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대중들은 간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변화하는 간호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있지 못하며, 간호사를 보는 시각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왜곡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이미지 보다는 여성들이 하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 또는 추상적인 '백의의 천사' 등으로 보고 있으며 (Kalisch & Kalisch, 1983)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이미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간호에 대해 왜곡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간호교육이나 실무의 영역, 건강관리체계나 사회속에서 간호사들의 위상, 역할등에 관한 잘못된 지식과 갈등을 주기가 쉽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의료소비자나 간호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절한 역할에 맞는 적정인력의 활용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흔히 대중들의 이미지는 소문(rumor)이나 사적인 견해, 또는 비과학적이고 불확실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진다(신, 1989). 이러한 매스미디어에는 크게 인쇄매체, 라디오,

* 본 논문은 '92학년도 경상대학교 연구장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TV등을 들 수 있다(최, 반, 김, 김, 1990).

Cohen(1963)에 의하면 언론미디어는 수용자의 의제를 설정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중에서 신문은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인쇄매체이고 언론미디어 중에서도 독자들의 생각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연장역할을 한다(박, 김, 최, 1990).

일반적으로 어떤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Donley, 1985)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미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 중에서 특히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회적 여론을 유도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문을 통해 나타난 간호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므로써 실제 신문을 통해 비추어지고 있는 간호는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해서 대중에게 변화하고 있는 간호의 현주소를 제시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간호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며, 그에 합당한 간호정책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국내에서 가장 역사와 발행부수면에서 대표성을 지닌 신문이기는 하나 두 신문에 국한 되었으므로 전체 신문에 확대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내용분석 방법은 그 자체만 가지고 그 내용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진술할 수 없다.

II. 문헌고찰

1. 간호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상(像), 영상(映像)을 의미한다(이, 196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란 개념은 신문에서 간호를 어떻게 보도했느냐 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1982)에 의하면 이미지 개념을 사용하여 신문보도

를 연구할 때에는 그 보도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하나는 보도의 양을 보는 것으로서 보도의 많고 적음을 통하여 이미지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에 관한 보도로서 그 분야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신(1989)은 또한 Boulding(1961)의 주장을 제시 하면서 이미지와 행동간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행동이 이미지에 의존하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이미지를 형성 시키며 수정, 변형시킨다. 또한 이미지는 고정관념처럼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강하고 편견적이며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미지는 불완전하고 비 과학적인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간호학자로서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Kalisch & Kalisch (1987)에 의하면 간호의 이미지란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beliefs), 생각(ideas), 느낌(impressions)의 합"이라고 본다.

대중적 이미지는 사회와의 연결이 되는 것이며 대인관계와 대중매체에서 상징을 사용하여 상호간의 이미지를 교환하므로써 생성이 된다.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는 그룹간의 격차를 야기하고, 또한 강화 시키며, 만일 간호사들이 계속 부정적 이미지로 비추어 질 경우에는 그들의 삶과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Mendez & Louis ; 1991).

Kalisch & Kalisch(1983)에 따르면 대중매체에 비추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간호사의 자존심에 영향을 주고,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을 손상시키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간호사들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Buresh & Gordon & Bell(1991)은 1990년도 전반부의 3개 일간지를 분석해서 언론인들이 건강관련기사의 정보를 일차적으로 누구에게서 얻는가를 알아본 연구에서, 5위까지 직접 인용된 기사를 직업별로 알아본 결과 32.4%가 의사에 의한 인용이었고 건강관리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인 간호사에 의한 인용은 단지 1.1%에 불과했으며, 이는 오히려 다른 직업보다도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게다가 간호의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강문제들(예를 들어서 질병의 예방영역,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모자건강등) 까지도 간호사가 거의 정보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간호사들은 사실상 건강관련 뉴스에서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

들이 자신들의 숙적인 힘과 능력을 덜 중요시 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Q-방법론을 이용해서 국내의 간호의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박, 엄, 정, 정, 최, 1992) 간호의 이미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간호란 희생과 봉사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나이팅게일형', 간호업무와 간호사를 위압감과 괴리감을 갖고 파악하는 '뼈꾸기 등지형', 그리고 간호를 체계적이며 근본적으로 파악하려는 '현실 개선형', 간호사와 간호의 역할을 '어머니와 동일시'하려는 유형등으로 나타났다.

Bridge(1990)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간호의 이미지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봉사하는 천사같은 이미지' '전부(戰斧)의 이미지' '인정없는 고약한 이미지' '의사들의 보조자'등으로 나누고 있다.

Wilson-Barnett(1984)은 Nursing Times의 독자로부터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343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일하며,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실무는 독립적이며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에게는 현실을 향상시킬만한 정치적 능력이 적으며 성공에 대한 포부도 적다고 생각한다.

Kalish & Kalish, Belcher(1985)는 간호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효과적인 간호의 이미지 증진 방안을 위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호에 관련된 4년간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 간호의 이미지는 노동시장, 임상간호이슈와 관련이 있는 변수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으며 이중 임상간호와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가 간호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Kalisch & Kalisch(1982)는 204개의 영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1940년대 이래로 간호의 이미지는 점차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이다가 1970년대 부터 다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뼈꾸기 등지위를 날아간 새(1975)'와 'Nurse Diesel in High Anxiety'(1973)에서 그려진 간호사의 가학적이고 사악한 성격으로 인한 영향을 꼽을 수 있다고 본다. 즉, TV와 영화에서 보여지는 간호는 변화하는 간호의 전문적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간호사에 대한 좋은 느낌과 신뢰마저도 낮추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uran(1985)도 '뼈꾸기 등지위를 날아간 새'나 'Terms of endearment'등의 영화에서 등장한 간호사들이 그 시대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던 예를 제시하면서 대중매체의 간호 이미지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책도 대중적 견해와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Kalisch & Kalisch(1982)에 의하면 소설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는 대부분 여성적 성격, 즉 "남성들의 상대역, 남성들을 괴롭히는 대상, 어머니".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적으로 문란한 주인공 간호사의 성격은 1960년대에 소설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간호의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대중적인 애정소설에 나타나고 있다.

Kippman & Ponton(1989)는 대중매체에서 간호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와 대학에서의 이미지가 일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539명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대학 캠퍼스에서의 간호의 이미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대학교수들이 갖고있는 간호의 이미지는 대중매체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교육받은 자율성이 있는 대상으로서 보여지고 있었고, 간호사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간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 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Smith & Smith(1989) 학생들의 가치관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27종의 건강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교적 간호전문직에 관한 정확하고 균형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Kelly(1980)는 이미지에 관한 관심을 정체감(Identity)을 찾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시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간호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Donley(1985)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미지의 발전이 간호계 자체의 내적인 요소보다는 외부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간호조직의 리더들은 간호의 대중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간호계의 현안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간호에 대한 이미지는 보는 이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Hughes(1979)는 일반 대중들이 간호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실제적, 잠재적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고 본다.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대중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잡지와 소설, 그리고 신문을 통해 분석한 역사적인 연구의 결과 간호는 현실과 왜곡되게 비추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생각, 신화적인 믿음에 기초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비추어진 간호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들의 일, 도덕적 감수성을 지녀야 하고 순결, 모성적 정서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동적이어야 하고 부수적인 일(남성에 뒤지는)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대중매체란 간호사나 간호에 대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인 대중들의 견해를 이끌어간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보건관리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때 아마도 간호가 긍정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심어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일반대중은 건강관리의 소비자이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와 이용이 간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 점은 간호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Dumas(1985)는 여성운동이 간호의 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고, 간호는 여성들의 건강에 많은 공헌을 해왔으며 여성우위의 전문직으로써 여성운동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간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써 여성적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발행한 '간호와 모니터'(1990)에서 대중매체에 비추어진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1991)는 '백의의 천사'로서 어린이들의 선망대상이 되어온 간호사의 위상이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가치관, 전문직관, 사랑, 도덕성에서 왜곡, 비하되는가 하면 직업현장에서도 의료전문직의 팀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장식적 위치에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대중의 견해를 형성하는 토대는 대중이며 대중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서로 접촉하므로 이것을 간호사의 사회적 위상 고양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신문의 영향력

신문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식자성, 재독의 가능성, 기사내용 선택의 자유성, 열독시간의 자유성, Why와 How의 인지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신문이 갖는 장점으로는 다른매체보다 더 깊은 생각과 인상을 독자들에게 준다는 점과, 고정적인 특성으로 인한 신

뢰성을 주고 재독이 가능하므로 동시성은 적으나 대량 전달이 가능하며, 기사내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신문을 보는 시간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매체에서 알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신문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언론매체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신문의 기본 기능으로는 보도적기능, 지도적기능, 오락적 기능, 광고적 기능등을 들 수 있다. 신문이 갖는 사회적 기능으로는 환경감시와 적응기능, 사회적 지위와 규범기능으로서 지위부여기능, 사회규범의 강제, 마취적 악작용등을 들 수 있다(최, 등, 1990).

박(1984)은 신문의 기능을 크게 보도적 기능, 지도적 기능, 평균화의 기능을 들고 있다. 보도적 기능이라 함은 다양한 뉴스의 보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능이며 보도는 현실적 사실들을 전달하는 일, 다시 말하면 신문의 사명에 입각한 현실적 사실에 의한 기술을 그 가치에 의해 형태화 하는 일을 말한다. 지도적 기능이라함은 신문이 사회의식의 형성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도의 기능보다도 적극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사회적 평균화의 기능은 대다수의 독자를 평균적 인간의 평균적 관심에 어필하게 한다는 것으로 대중의 내면적, 논리적 문제 보다는 표면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관한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따른 효과로서 정보습득의 효과와 태도변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ohen(1963)에 의하면 언론미디어는 수용자의 의제를 설정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언론미디어 중에서도 신문은 독자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강력한 연장 역할을 한다(박, 등, 1990).

Kalish & Kalish(1985)는 간호나 간호사에 관한 신문기사는 보건분야에서 정치경제적인 힘을 행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중요한 사회 경제적 경향들은 일반대중들(하부조직)로부터 형성이 되고 상향적으로 적용한다는 이론에서 출발한 신문분석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시된 자료들은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Wright(1975)는 보건에 관한 정보원으로서 라디오, 잡지, TV의 이용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신문과 잡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이 미디어들이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있다고 했다. 매스미디어는 공

중에게 보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로서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보전관리 정보를 제공할 책임도 지고 있다.

조(1975)에 의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대중매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미디어와 전달 방법에 따라 대중은 '개인의 고독', '친화성 및 연대감의 결여'를 맛보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실제적인 환경(real environment)에 접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위환경(pseudo environment)에 지배당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대중매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실제적인 대중들의 가치관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중매체의 특성과 성향들을 잘알고 그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이야말로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중에서 조선일보(조간지)와 동아일보(석간지)를 임의 선정해서 이들 신문에 게재된 간호(간호사)와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자료로 하였다. 그러한 분석기사는 1987년 1월 1일에서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 광고를 제외한 일반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으로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객관성이나 일반적인 평가면에서 비교적 보편성을 띠고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방송이나 인쇄매체에서 미디어의 내용을 조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내용분석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월리저와 위너(Walizer & Wienier : 1978)에 의하면 내용분석이란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안된 어떤 체계적인 절차라고 정의했다(유, 1991). 또한 Krippendorff(1980)는 어떠한 자료로부터 그 문맥에 대

한 보편적인 정의로서 타당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Kerlinger(1986)는 내용분석이란 변수의 측정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연구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한다. Waltz(1981)는 내용분석이란 특별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하며 수량화하기 위해서 인쇄매체의 본문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내용분석은 책, 잡지, 개인적 이야기, 기사, 영화, 뉴스, TV 프로그램등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김, 1989).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신문의 내용은 신문지상에 실린 기사, 제목, 사진, 커트, 여백, 광고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그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사, 제목, 사진만을 말한다(박, 1984).

본 연구는 내용분석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였다(유, 1991).

먼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987년 1월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의 발행분에 게재된 간호(사)와 관련된 기사 전수를 수집하였다(사진 포함).

다음은 분석유목(Category of Analysis)을 결정하였다. 분석유목의 결정은 미디어의 내용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이용 가능한 유목의 체계는 상호배제적이어야하고 어느 유목에나 포함이 되어야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유목의 유형으로는 주제, 방향, 가치, 소재등 다양하다(김,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관련기사의 주제 내용과 방향, 기사 형태등을 분석유목으로 채택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제의 분류작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한편의 기사속에 몇가지 주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에 따랐다. 또한 간호와 관련이 없는 기사이면서 사진만 보도된 경우에도 1개의 기사로 보되 별도 분류를 하였다. 독자투고도 하나의 기사로 보되 별도로 분류 하였다. 사진과 기사가 함께 있는 경우는 1개의 기사로 보았다. 확대 적용을 하면 간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의학적 기사중에서) 간호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기사에서 제외되었다.

1) 주제내용

- ① 전문적 간호업무분야나 간호활동.
- ② 간호계의 행사나 활동(개인 활동이 아닌 간호계의 동향)

- ③ 간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노동조합 활동)
- ④ 간호사가 관련된 사건
- ⑤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간호(행정적 차원)
- 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 ⑦ 기사와 관계없이 간호사들의 사진만 게재된 경우
- ⑧ 기타

2) 기사의 보도 방향

간호에 대한 호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1989)이 제시한 방향분석의 조작적 분류를 이용해서 방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분석자료는 해설적 또는 사실형태의 기사를 택하였다.

- ① 호의적 기사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는 기사-유쾌, 유머적, 조화적, 건설적, 건전, 회복경향, 공유, 협동, 이타, 애정적, 확신적, 긍정적인 새로운 발견, 호전경향 등.
- ② 중립적 기사 : 완전히 호의적인 것도 비호의적인 것도 아닌 논조로 인식될 때, 혹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해설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다고 보이는 기사.
- ③ 비호의적 기사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는 기사-부정적, 불유쾌 갈등적, 불건전, 섬뜩함, 기만적, 파괴적, 모욕적, 욕설적, 악화경향 등.

3) 기사형태

기사형태면에서의 분석은 기사 작성자, 기사형, 기사종류별 분류를 하였다(이, 1974).

- 기사작성자 : ① 기자, ② 간호계 인물, ③ 번역기사, ④ 독자투고, ⑤ 기타
- 기사형 : ① 사실, ② 해설, ③ 스트레이트뉴스, ④ 인터뷰, ⑤ 기고
- 기사종류 : ① 기획기사, ② 보도기사 ③ 국내 기사 ④ 국외기사

3.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2명의 연구자가 수차례 걸친 내용검토와 의논을 통해서 분석유무를 결정 하였으며, 이러한 코딩도구와 유목체

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분석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거친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코드가 혼자서 코딩 유목에 따라 분석해 보도록 한 후 불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한 의논을 다시 하였다. 다시 정해진 유목에 따라 각각 별도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코더간 신뢰도를 다음의 Holsti 방법에 의거 계산하였다(유, 1991).

$$\text{신뢰도 계수} = \frac{2M}{N_1 + N_2}$$

N_1 = 첫번째 분석자가 분류한 기사수

N_2 = 두번째 분석자가 분류한 기사수

M = 두명의 분석자가 일치되게 분류한 기사수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내용분석에서 홀스티 공식을 이용할 경우, 신뢰도 계수는 약 90% 이상이면 적당하다고 보며(유, 199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평균 89.8%이었다.

<표 1>

| 내 용 | 신뢰도계수 |
|----------|-------|
| 주 제 분석 | 0.89 |
| 호 의 도 분석 | 0.92 |
| 기 사 형 분석 | 0.91 |
| 기 사종류 분석 | 0.88 |
| 기 사분량 분석 | 0.89 |

IV. 결과 및 논의

1. 간호관련 기사의 신문별, 년도별 기사 건수

기사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110건의 기사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기사횟수는 다음과 같다(표-1). 이중 간호와 관련이 전혀 없으면서 간호사의 사진만 실린 경우가 14건이므로 순수한 간호와 관련된 기사는 총 9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월 평균 1.6건 정도가 보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1980년에서 1984년 까지 5년간 국내의 주요 4대 일간지에 실린 보건관련 기사는 4431건 이었다. 이에 비하면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간호(사)에 관한 기사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비추어 볼때 신문매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년도별 간호관련 기사의 보도건수와 그 추이를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거의 비슷하게 각각 59건, 51건의 기사를 실고 있었으며, 해마다 큰 변화가 없이 거의 비슷한 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2>. 특히 간호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ICN이 열린 1989년과 다른 해와의 기사 보도량이 별로 차이가 나지않고 있었다.

월별 보도량을 보면 5월과 12월의 기사보도량이 가장

많았으나 1년 전체의 기사량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3>. 여기서 5월의 보도량은 ICN의 개최와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기사때문이고 12월의 기사는 1987년 12월의 서울대학교 병원 노사분규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6회, 동아일보에서 4회 게재 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병원이 갖는 공익성, 특수성으로 인해서 병원 노사분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신문별, 년도별 간호관련기사의 보도건수

단위 : 보도건수(%)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계 |
|----|----------|----------|----------|----------|----------|------------|
| 동아 | 16(14.5) | 13(11.8) | 8(7.3) | 12(10.9) | 10(9.1) | 59(53.6) |
| 조선 | 13(11.8) | 8(7.3) | 15(13.6) | 9(8.2) | 6(5.5) | 51(46.4) |
| 계 | 29(26.4) | 21(19.1) | 23(20.9) | 21(19.1) | 16(14.5) | 110(100.0) |

<표 3> 간호관련 기사의 월별 기사량

단위 : 보도건수(%)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기사량 | 8 (7.3) | 5 (4.5) | 8 (7.3) | 8 (7.3) | 20 (18.2) | 7 (6.4) | 8 (7.3) | 4 (3.6) | 9 (8.2) | 6 (5.5) | 10 (9.1) | 17 (15.5) | 110 (100.0) |

2. 간호관련기사의 주제별 분석

간호관련기사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전문적 간호업무 분야나 활동에 관한 기사'가 31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들의 지위향상이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들이(노조활동 포함) 26건(23.6%)이었으며, '간호제 자체의 행사나 활동'이 12건(10.%)으로서 전체 주제건수의 60% 이상이 간호사들 자체의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다<표-4> <표-5>. 이러한 결과는 Kalish and Kalish(1985)의 신문분석연구에서 대중매체에 비추어지는 간호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노동문제(Labor issue), 전문적인 간호사의 역할수행, 간호인력의 인구통계학적인 문제등을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다. 여기서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는 간호의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 즉, 간호사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열악한 대우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표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간호사들이 강하고 힘이 있으며 존경받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특성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받는 불이익이나 열악한 근무조건, 환자간호의 자율성 부족, 낮은 직업적 명성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표 4> 간호관련 기사의 주제별 신문별 보도건수

단위 : 보도건수(%)

| 주 제 | 동아 | 조선 | 계 |
|--------------------------|----------|----------|------------|
| 전문적 간호업무 분야 | 17(15.5) | 14(12.7) | 31(28.2) |
| 간호제의 행사나 활동 | 5(4.5) | 7(6.4) | 12(10.9) |
| 간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 12(10.9) | 14(12.7) | 26(23.6) |
| 간호사가 관련된 사건 | 2(1.8) | 4(3.6) | 6(5.5) |
| 보건의료전달체제와 간호 | 2(1.8) | 3(2.7) | 5(4.5) |
|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 5(4.5) | 3(2.7) | 8(7.3) |
| 간호와 관련 없이 사진만 소개 | 10(9.1) | 4(3.6) | 14(12.7) |
| 기 타 | 6(5.5) | 2(1.8) | 8(7.3) |
| 계 | 59(48.0) | 51(52.0) | 110(100.0) |

<표 5> 간호관련 기사의 주제별 년도별 보도건수

단위 ; 보도건수(%)

| 주 제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계 |
|--------------------------|----------|----------|----------|----------|----------|------------|
| 전문적 간호업무 분야 | 4(3.6) | 4(4.5) | 6(5.5) | 10(9.1) | 6(5.5) | 31(28.2) |
| 간호계의 행사나 활동 | 3(2.7) | 2(1.8) | 7(6.4) | - | - | 12(10.9) |
| 간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 14(12.7) | 3(2.7) | 6(5.5) | 3(2.7) | - | 26(23.6) |
| 간호사가 관련된 사건 | 1(0.9) | 2(1.8) | 1(0.9) | 2(1.8) | - | 6(5.5) |
| 보건의료전달체제와 간호 | - | - | 2(1.8) | 2(1.8) | 1(0.9) | 5(4.5) |
|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 2(1.8) | - | - | 2(1.8) | 4(3.6) | 8(7.3) |
| 간호와 관련 없이 사진만 소개 | 2(1.8) | 5(4.5) | 1(0.9) | 1(0.9) | 5(4.5) | 14(12.7) |
| 기 타 | 3(2.7) | 4(3.6) | - | 1(0.9) | - | 8(7.3) |
| 계 | 29(26.4) | 21(19.1) | 23(20.9) | 21(19.1) | 16(14.5) | 110(100.0) |

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노사분규와 관련된 문제들은 간호사들이 대중을 위해 해야 할 기본적인 서어비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에서 제시되었지만 간호사들의 지위향상이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은 총 26건(23.6%)이 기사화 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기사의 비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권익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제별 기사의 호의도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간호업무나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즉 교육적인 준비나 역할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일부기사중에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 학력을 설명하는데 2~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동아, 1987. 7. 24), 간호사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도 간호원이라고 한동안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예 등이 자주 보이고 있었으며, 명백히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기사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독자투고란에 '6개월 교육 간호원 보전소 배치 말 안돼.'.....(조선, 1988. 1)와 같은 기사는 호칭과 교육적 자질, 역할등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그대로 게재가 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의학교육과 수련에 대한 년한은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그에 대비시킨 간호사의 교육 연한을 6개월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기사를 한 독자의 실수라고 보아넘기기에는 신문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게다가 '6개월 교육 간호사 치료보다 예방치중.'이라는 내용의 독자투고가 앞의 기사에 대한 설명형식의 기사로 다시 실리는데 이 독자는

자신을 보건의료원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원이라는 호칭에 대한 신문사의 잘못을 일부 지적하면서 6개월 교육간호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므로써 자칫 6개월의 교육만으로도 간호사가 될수도 있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한방 간호원 자격제 추진'이라는 기사(조선, 87. 1)에서는 단 한줄의 간호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한의학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한방진료보조원(간호원)'이라는 단어가 단 1회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는 기사 제목의 내용과도 아주 동떨어진 것이며 완전히 보조원과 간호사를 동일시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언론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주므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인것으로 보인다.

3. 간호관련 기사의 보도방향(호의도) 분석.

간호에 관한 전반적인 보도의 방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기사가 48건(50.0%), 중립적인 기사가 31건(32.3%),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가 17건(17.7%)으로 나타났다(표-6). 이러한 자료를 통해본다면 신문에 제시되고 있는 간호관련 기사는 80% 이상이 중립 이상의 보도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신문별 보도방향을 보면 동아일보가 긍정적 기사 23건(24.0%), 중립적 기사 19건(19.0%), 부정적 기사 5건(5.3%)으로 나타났다.

<표 6> 간호관련 기사의 신문별 보도 방향

단위 ; 보도건수(%)

| 호의도 | 동아 | 조선 | 계 |
|-----|----------|----------|-----------|
| 긍정 | 23(24.0) | 25(26.0) | 48(50.0) |
| 중립 | 19(19.8) | 12(12.5) | 31(32.3) |
| 부정 | 7(7.3) | 10(10.4) | 17(17.7) |
| 계 | 49(51.0) | 47(49.0) | 96(100.0) |

8%), 부정적 기사가 7건(7.3%)이었으며, 조선일보는 긍정적 기사가 25건(26.0%), 중립 12건(12.5%), 부정적 기사가 10건(10.4%)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특정 신문의 보도경향을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년도별 보도 방향은 표-7 같이 비교적 균등한 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특별한 경향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989년과 1990년에 특히 긍

정적 방향의 기사가 많은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ICN의 개최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정적인 보도성향을 보인 기사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노사분규, 병원의 불친절, 투약사고 등에 관한 기사 등이었다.

〈표 7〉 간호관련 기사의 년도별 보도 방향

단위 : 보도건수(%)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계 |
|----|----------|----------|----------|----------|----------|-----------|
| 긍정 | 7(7.3) | 7(7.3) | 15(15.6) | 14(14.6) | 5(5.2) | 48(50.0) |
| 중립 | 15(15.6) | 6(6.3) | 3(3.1) | 3(3.1) | 4(4.2) | 31(32.3) |
| 부정 | 5(5.2) | 3(3.1) | 4(4.2) | 3(3.1) | 2(2.1) | 17(17.7) |
| 계 | 27(28.1) | 16(16.7) | 22(22.9) | 20(20.8) | 11(11.5) | 96(100.0) |

간호 관련 기사의 주제별 호의도를 보면 〈표 8〉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간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노조활동 포함)'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5건으로 26건의 기사 중 19.2%이고 전반적으로 중립내지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립 이하의 비율이 26건 중 21건(79.8%)인데 반해서 다른 주제들, 즉, 전

문적 간호업무분야는 31건 중 7건(22.6%)만이 중립 이하의 방향을 보이고 있고 '간호계의 행사나 활동'은 12건 중 1건인 8.3%만이 부정적인 보도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주제들과는 구분이 되는 보도 방향이며 그 까닭으로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시각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간호관련 기사의 주제별 보도 방향

단위 : 보도건수(%)

| 주 제 | 긍정 | 중립 | 부정 | 계 |
|---------------------------|----------|----------|---------|-----------|
| 전문적 간호업무분야 | 24(77.4) | 4(12.9) | 3(9.7) | 31(100.0) |
| 간호계의 행사나 활동 | 11(91.7) | 1(8.3) | - | 12(100.0) |
| 간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 | 5(19.2) | 14(53.8) | 7(27.0) | 26(100.0) |
| 간호사가 관련된 사건 | - | 3(50.0) | 3(50.0) | 6(100.0) |
| 보건의료전달체제와 간호 | 3(60) | 2(40.0) | - | 5(100.0) |
|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 5(62.5) | 2(25.0) | 1(12.5) | 8(100.0) |
| 기 타 | - | 5(62.5) | 3(37.5) | 8(100.0) |
| 계 | 48 | 31 | 17 | 96 |

4. 간호관련 기사의 기사형 및 기사종류의 분석

간호관련 기사형 및 기사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기획 기사가 59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기사가 37건(38.5%)이었다. 또한 국내 기사가 96.9%를 나타내고 있다. 기사종류별로는 해설 기사가 39.6%, 스트레이트 뉴스가 29.2%로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뷰 기사가 11건이었다(표-9). 일반적으로 신문사의 경

우는 취급 기사의 절반 가량이 보도 자료를 활용한 기사 작성을 하므로(이정춘, 1991) 이러한 사실에 견주어서 간호계는 남들에 의해서 평가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매체에 대해서 정확하고 앞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나 간호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사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언론사에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므로 그것을 어떻게 기사화 하도록 하는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대중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간호계의 여러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기사거리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Publicity 전략으로서 이(1991)는 사건을 만들어 내는 방법, 스타를 만드는 방법, 홍보전기의 연출방법, 매개의 유형과 통로를 잘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결과로는 기사의 분석결과 국내기사가 거의 대부분(96.5%)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간호전문직의 국제적인 추세가 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간호전문직이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나 학문적인 발전, 그리고 앞서가는 간호실무의 영역을 제시해 주므로써 일반적인 간호의 이미지 증진효과를 기대함은 물론이고 유능한 후학들이 간호학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가 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할 영역을 제시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보건관련 정책의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표 9> 간호관련 기사의 기사형 및 기사의 종류

| | | 단위 ; 보도건수(%) | |
|-----|-----------|--------------|-----------|
| 기사형 | 건수 | 기사종류 | 건수 |
| 기 획 | 59(61.5) | 사 설 | 4(4.2) |
| 보 도 | 37(38.5) | 해 설 기 사 | 38(39.6) |
| | | 스트레이트 뉴스 | 28(29.2) |
| 국 내 | 93(96.9) | 인 터 뷰 | 11(11.5) |
| 국 외 | 3(3.1) | 기 고 | 15(15.6) |
| 계 | 96(100.0) | 계 | 96(100.0) |

5. 간호관련기사의 기사작성사

간호관련기사의 기사 작성자를 살펴보면 기자가 76명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자투고가 12건(12.5%)을 차지하고 있다<표 10>. 간호사들이 주체가 되어 쓴 글은 2건 밖에 없는데, 이것은 신문사로부터의 청탁기사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간호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도 소극적이고 언론매체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적어도 국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간호계에서 언론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Bernice Buresh & Suzanne Gordon, Nica Bell(1991) 등은 언론인들이 건강관련기사에서 누구를 기사의 정보제공자(sources)로 활용하는 가를 알아본 연구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은 정보 제공원으로 활용이 되어서 전체 기사의 32.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간호사(1.1%)는 다른 일반인들보다도 적어서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들의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 즉 모아건강, 노인간호, 만성질환, 에이즈 환자들의 간호, 약물남용, 질병예방의 분야에서도 간호사들은 전문가로서의 발언을 하지 못하고 역할을 포기하고 있

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우리의 경우도 간호사들이 저널리스트들에게 관련분야의 적격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즉 정보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보도기관과의 정규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할 필요와 함께 간호사들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언론매체에서 보여지는 간호계의 침묵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일인데, 그 까닭은 어떤 전문분야의 활동영역은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언론사에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의 영역이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건강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표 10> 간호관련 기사의 기사 작성사

| | | 기사건수(%) |
|---------|--|-----------|
| 기 자 | | 76(79.2) |
| 간호계 인물 | | 2(2.1) |
| 번 역 기사 | | 2(2.1) |
| 독 자 투 고 | | 12(12.5) |
| 기 타 | | 4(4.5) |
| 계 | | 96(100.0) |

6. 간호관련기사와 사진기재

전체기사중 44건(40.0%)이 사진을 게재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간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학적인 분야나 유사 관련분야에서도 간호사들의 사진이 14건이나 실리고 있었다. 물론 간호사가 상징하는 병원이나 건강관리분야에서의 중요한 역할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적인 모습보다는 막연한 상징적인 존재로서 남아있는 조용한 간호인들의 모습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은 보는이들에게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더불어 얻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체가 아닌 들러리의 역할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가 신문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즉 전반적인 간호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시도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선택해서 1987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간호관련 기사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서 간호관련기사의 주제 내용과 보도의 방향(호의도), 기사형태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간호관련기사는 5년간 총 110건이었고, 이 중 간호와 무관한 기사에 사진만 실린 14건을 제외하면 순수한 간호관련 기사는 96건이었다.

둘째, 주제별 분석을 보면 '전문적인 간호업무나 활동에 관한 기사'가 28.2%로 가장 많았고 '지위향상이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노조활동 포함)'은 23.6%, '간호계 자체의 행사나 활동'에 관한 내용이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사의 보도방향(호의도)을 보면 긍정적인 기사가 50.0%. 중립적인 기사가 32.3%,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가 17.7%로 나타났다.

넷째, 기사형태면에서 분류해보면 먼저 기사종류로는 해설이 39.6%, 스트레이트 뉴스가 29.2%, 기고가 15.6%, 인터뷰 기사가 11.5%이었다. 기사형은 기획보도가 61.5%, 보도 기사가 38.5%이었으며 국내기사가 96.9%, 국외기사가 3.1%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

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간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보건관리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990), 간호와 모니터 대한간호협회.
- 김광기(1984), 주요 월간지의 보건관계기사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김규역(1989), 메스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연구: 알렉시스 탠(1985); Mass Communication Theories & Research. 서울: 도서출판 나남.
- 김유정(1983), 한국신문 여성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 김지미(1986) 주요 일간지의 보건관련기사 내용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김지운 역(1989), 맥스컴의 사회학, 서울: 삼성문화문고.
- _____동아일보, 조선일보, 1986. 1. 1~1991. 12. 31.
- 박성애, 김순희, 최윤희(1990), 보건커뮤니케이션: 계리크랩, 바바라 토른톤(1984), Health Communication. 서울: 도서출판 나남.
- 박성애, 엄영란, 정면숙, 정순영, 최경숙,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Q-방법론)(199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논문집, 6(1), 13-23.
- 박유봉(1984), 메스커뮤니케이션, 서울: 일조각.
- 신홍주(1989), 한국신문에 나타난 중국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대학원.
- 유재천 역(1989),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로저 워머, 조셉 도미넬(1983),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이상철(1982), 한국신문에 나타난 미국의 이미지, 중대신문, 1982. 6. 17.
- 이정춘(1991), 사회속의 간호전문직상 정립,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교재.
- 이준우(1974) 한국신문 문화면의 내용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 이희승(1982),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정진석(1992), 한국언론학 박사,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조용영(1975), 주요 일간신문의 교육관계 사설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진우, 반영환, 김광수, 김현중(1990), 신문 방송학개론, 서울 : 대광출판사.
- Bridges, J.M.(1990), Literature review on the images of the nurse and nursing in the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850-854.
- Buresh, B., Gordon, S., Bell, N.(1991) Who counts in News coverage of health care?., *Nurs Outlook*, 39(5), 204-208.
- Curan, C.R.(1985),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media. (Ed) *Current Issues in nursing*. Joanne Comi McClosky, Helen Kennedy Grace, Blackwell Scientific Pub.
- Donley, Sr.R.(1985), Strategies for changing nursing's image. (Ed), *Current Issues in Nursing*, 824-834.
- Dumas, R.G.(1985), Coming of Age : The womens movement and Nursing, *Political action/Handbook for nurses*. A-W publishing, Comp., Health science division Menlo Park, California, 23-36.
- Hughes, L.(1979), The public image of the nurse, *ANS*, 2, 55-71.
- Kalisch, P. & Kalisch, B.(1982), The Image of nurses in the novels, *AJN*, 82, 1220-1224.
- Kalisch, P. & Kalisch, B.(1982), The image of the nurse in motion picture, *AJN*, 82(4), 605-611.
- Kalisch, P. & Kalisch, B.(1983), Anatomy of the image of the nurse : Dissonant & ideal models In C. Williams(Ed), *Image-Making in Nursing*, Kansas City : American Academy of Nursing.
- Kalisch, P. & Kalisch, B.(1983), Improving the image of nursing. *AJN*, (1), 48-51.
- Kalisch, P. & Kalisch, B.(1985), Forecasting for nursing policy ; A News-based image approach, *Nursing Researach*, 34(1), 44-49.
- Kalisch, P. & Kalisch, B.(1987),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Menlo Park, CA, Addison-wesley Pub. Co.
- Kelly(1980), Nursing image : A question of identity, *Nurs. Outlook*. 28 : 202.
- Kerlinger, F.(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3rd ed.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Kippman, D.T., Ponton, K.S.(1989), Nursing's image on the university campus, *Nurs Outlook*, 37(1), 24-27.
- Krippendorff, K.(1980)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 Sage.
- May, F, Austin, J.K. & Champion, V.(1988), *Attitudes, values, and beliefs of the public in Indiana towards nursing as a career*. Indiana Univ. school of nursing : SigmaThetaau, International.
- Mendez, D., Louis, M.(1991), College student's image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7), 311-319.
- Smith, M.K., and Smith, M.C.(1987), What high school texts say about nursing, *Nurs Outlook*, 37(1), 29-30.
- Waltz, C.F., Bausell, R.B.(1981), *Nursing Research*. Philadelphia, F Davis Comp.
- Wilson-Barnett, J.(1984), What do nurses think of nurses? *Nursing Times*, 80, 51-52.
- Wright, W.(1975), "Mass Media as Sources of medical Infor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5, 171-173.

- Abstract -

The Image of Nursing projected in Newspapers

Jung, Myun Sook · Kang, Young S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age of nursing, that is, to see how nursing is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viewed in newspapers.

Articles about nursing from two Korean daily newspapers from Jan. 1, 1987 to Dec. 31, 1991 were examined for subject, type, attitude and authorship.

The inter-rater reliability was 0.89 (by The Holsti metho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were 110.
2. As for the subjects matter, articles related to professional nursing activities appeared most frequently (29.6%), there about labor issues and activity to promote nurses's job climate 19.4%, and about official activities of nursing 11.2%.
3. Commentary articles appeared most frequently (41.2%), Other article forms were straight news (27.1%), contribution (17.6%) and interviews (10.6%).
4. Feature stories accounted for 62.4% and news articles for 37.6%. Most of the articles were of national interests (96.5%), the rest (3.5%) of news from abroad.
5. Articles favorable toward nursing accounted for 54.1%, neutral 28.2%, negative 17.6%.
6. Many articles were written by the reporters (66.3%).